

'5·18 시민군 참여' 데이비드 돌린저…광주 명예시민

5·18민주화운동 시민군으로 참여한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ee Dolinger)씨가 광주 시민이 됐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한국명 임대운을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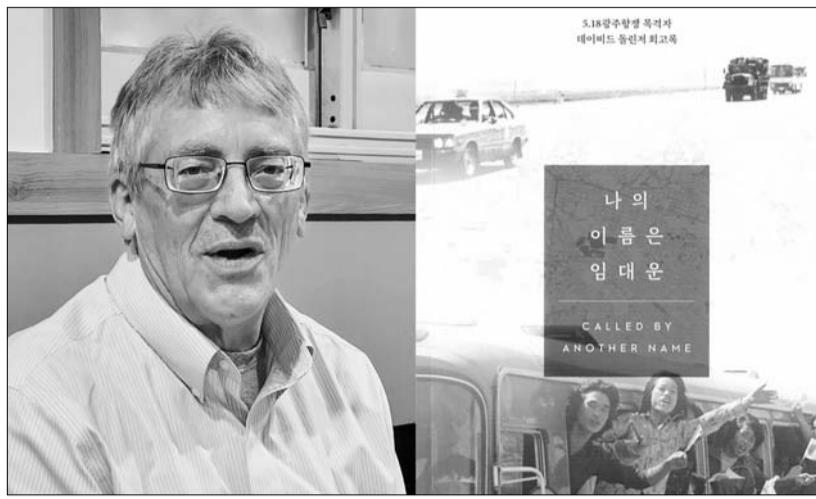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다음달 14일 전일빌딩 24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 '증인-국경을 넘어'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데이비드 돌린저'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보건소에서 근무했으며 5·18 당시 광주에 머물며 민주항쟁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시민군으로서 도청에 들어가 계엄군 무전기 청중 임무를 수행했다.

또 고(故)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

'나의 이름은 임대운' 책 인쇄…5·18기금 조성



데이비드 돌린저 저서 '나의 이름은 임대운'

/광주 제공

자회견 통역을 맡아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렸다.

5·18 최후 항쟁자 옛 전남도청

에서 하룻밤을 보낸 외국인으로 알려졌으며 항쟁 이후에도 1981년까지 미군기지 강사로 근무하며 광주

와 한국의 민주화운동 상황을 미국에 알렸다.

유엔인권위원회에 광주 목격담을 담은 인권침해 보고서도 제출했다.

미국 내 한국 민주화운동 지지활동에 참여했으며 1985년 전두환 미국 방문 반대 시위, 1990년 광주항쟁 10주년 하버드대 추모 강연 등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지난 2022년에는 회고록 '나의 이름은 임대운'을 출간하고 인세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5월 당사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데이비드 돌린저는 국적을 넘어 5월 광주를 함께 살아낸 이웃이자 용기의 상징'이라며 "그가 남긴 기록과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NH농협, 전남교육청에 장학기금 14억7천만원 기탁 전남교육청은 29일 NH농협은행 전남본부로부터 14억666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기금은 전남교육사랑카드·지역상생카드·보탬이(e)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조성됐다. /김 호 기자



신안소방서, 고향사랑기부금 1040만 원 기부 신안군은 29일 신안소방서 직원 104명이 신안군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1040만 원에 대한 전달식을 개최했다. 2024년에도 신안군에 1004만 원을 기부한 신안소방서는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을 위해 올해에도 1040만 원을 기부했다. /신안=정경욱 기자



상사면 노인장수복지대학, 어버이날 행사 개최 순천시 상사면 주민당실대학 학생인 7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국수지원공사 주임답지사가 주최한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순천=조준의 기자



광양지 역협의체-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 업무협약 광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광양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재)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양=조준의 기자

GIST, 사람과 협업하는 AI 로봇 파지 모델 개발

AI융합학과 이규빈 교수 연구팀 "세계 최고 성능"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사람과 협업할 줄 아는 세계 최고 성능 AI 로봇 파지(把持·grasp) 모델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GIST AI융합학과 이규빈 교수 연구팀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작업자와의 협업을 고려한 세계 최고 성능의 혁신적인 로봇 파지 모델 'GraspSAM'을 개발했다.

작업자와의 협업을 고려한 혁신적 AI 모델인 'GraspSAM'은 점, 박스,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롬프트 입력을 지원하며, 한 번의 추론만으로 물체의 파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되지 않은 물체라도 복

능한 토큰(Learnable Tokens) 기법을 적용해 SAM을 파지 점 추론에 최적화했다.

이규빈 교수는 "GraspSAM 모델은 로봇과 사용자의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복잡한 환경에서 도 탁월한 파지 능력을 발휘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용 로봇, 서비스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노상준 박사과정생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 결과는 로봇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회 IEEE ICRA(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에서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한국광기술원-해군 미래혁신단, 해양방위산업 발전 '맞손'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

한국광기술원과 해군 미래혁신단은 29일 해양방위산업의 발전과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와 기술자료·정보의 교류 등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해군력 강화와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해양방위산업 관



▲ 공동연구 ▲ 기술자료 및 정보 공유 ▲ 민·군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 전문인력 교류 및 기술 전문가 포함되어 있다. /김도기 기자

광양 진상면-하동 진교면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

광양시는 진상면이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 하동군 진교면과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양시에서는 진상면 이장협의회, 발전협의회, 체육회, 의용소방대, 청년회, 자율방범대원, 진상면 공직자가 이번 교차 기부에 참여했다.

지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진상면 민·관이 한뜻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 610만 원은 하동군 산불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광양시와 하동군 간의 유대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남 진상면장은 "하동군 산불피해 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광양시와 하동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3년 도입됐다.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담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광양=조준의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mae.co.kr

외국인 근로자 함께 '안전동행·문화의 날'

완도소방서, 대한적십자 봉사회 완도협의회·라도피플 협업



완도소방서는 지난 28일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해 '안전동행 &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 90여 명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40여 명, 문화예술단체 '라도피플', 완도언론인협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완도군협의회 회원 40여 명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소방안전교육(119 신고 요령, 소화기 사용법, 신폐소생술), 안전체험 시뮬레이션(자진 체험 및 피난 탈출),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축하 공연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소방교육을 마치고 전통놀이 행사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완도군협의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나눴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라도피플'이 준비한 가수 축하 공연, 캐리커처, 드로잉 퍼포먼스 등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완도군협의회 천수진 회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섬김과 봉사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내년 행사에는 더욱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안양농협 오승자 상무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22년 연속 수상'…매년 시상금 기부·총 6000만원



장흥 안양농협의 오승자 상무가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4 NongHyup 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2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승자 상무는 지난 22년 동안 농업인과 고객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연도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다. /장흥=임민기 기자

특히 조합원과 고객의 입장에서 늘 먼저 생각하고 밸로 뛰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꾸준한 실적과 고객 만족을 기반으로 이룬 성과로, 이번 연도대상에서도 금상을 수상하며 다시 탁월한 영광을 이증했다. 매년 연도대상에서 받은 시상금을 장흥군 인재 육성장학금으로 기부해 지금까지 총 6000만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왔다. /장흥=임민기 기자

순천교육청, 씨앗프로그램 강사 사전교육

교육·보육 잇는 '순천형 유보이음교육' 본격 추진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저녁 '찾아가는 영유아 씨앗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강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영·유아 씨앗프로그램'은 어린이집 현장을 찾아가 그림책과 연계한 생태놀이 활동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순천교육청 허동근 교육장은 "순천교육이 영·유아 단계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조준의 기자